

중대본 4차 회의, 호우피해 조기 복구 및 주민 일상 회복 지원대책 논의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이재민 구호·복귀 지원에 총력
- 교육시설·전력·전통시장·농작물 등 피해 상황 점검 및 복구대책 마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최근 경남 지역의 기록적인 호우로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중대본 4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시설 피해 상황 점검 및 복구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가 강수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대책, 이재민 구호, 교육·전력시설 및 전통시장·상점가, 농작물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설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 복구대책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 논의 및 복구 대책>

1. 추가 강수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및 이재민 구호 총력 대응

산사태 및 급경사지 등 위험 지역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추가 강수에 대비한 방수포 설치 및 접근 통제 등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는 일시대피자와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 지원 및 심리 회복 지원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이재민 복귀 전 주거지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학교시설의 신속한 복구로 학생 안전 확보 및 학사 일정 정상화

초·중·고 등 교육시설의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침수 학교에 대한 신속한 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탄력적으로 조정된 학사 일정을 점검하는 한편, 개학 전 시설 안전 점검을 철저히 완료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기로 하였다.

3. 전력시설 및 개별 수용가 정전 복구 지원

전력시설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한국전력공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전 수용가에 대한 신속한 복구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특히 고객 수전설비 침수 등으로 복구가 지연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 불편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조속한 경영 회복 지원

거제 고현시장 등 침수 및 토석류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을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시설 복구 지원은 물론 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경영 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다.

5. 신속한 농작물 피해조사와 농가 영농 재개 지원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한 피해조사를 거쳐 재해복구비 및 보험금 지급을 통해 피해 농가들의 안정적인 영농 재개를 지원하고, 호우로 인한 농작물의 병해충 확산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약제 및 영양제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농진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생육 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본부장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피해 시설의 응급복구를 신속히 완료하고, 특히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	책임자	과 장	신일철 (044-205-5230)
		담당자	서기관	현종일 (044-205-5234)
		담당자	사무관	전혜숙 (044-205-5231)